



2018 전북대학교동창회 대의원회

2018 전북대학교동창회 대의원회가 4월29일 오후 2시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대의원과 '동문대상' 수상 동문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학기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동문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4면>

제20회 동문대상 수상자로는 재경동창회 이용재회장(무역학과 69학번·다산 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과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현대건설동문회(창립회장 김태규·토목공학 73학번·사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가 각각 받았다. 해외동문특별상은 박철(농학과 72학번·사진 오른쪽에서 여덟번째) 전 뉴욕동문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대 동문, 6·13 지방선거 대거 출사표

교육감·단체장·지방의원, 100여 명 후보 등록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동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4~25일 이들 동안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결과 전 북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총 25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58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전북대 동문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나서 지역 발전의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우선 모두 5명이 등록한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서거석(법학과), 이미영

(지리교육과), 이재경(교육대학원) 후보 등 동문 3명이 뛰었다.

또 각 기초단체장 선거도 관심을 모은다.

3파전으로 진행되는 전주시장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승수(정치외교학과) 동문과 첫 도전장을 낸 이현웅(행정학과) 동문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군산시장 선거에는 박종서(정보과학대학원), 익산시장 선거 정현율(행정학과), 남원시장 선거에는 이환주(대학원 공학박사) 동문이 후보로 나섰다.

김제시장 후보 박준배(대학원 행

정학박사), 정성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동문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주 박성일(법학과) △무주 백경태(행정대학원 재학) △장수 장영수(행정대학원) △임실 박기봉(행정대학원) △순창 황숙주(경영학과) △고창 유기상(대학원 문학박사) △부안 권익현(대학원 박사과정), 김상곤(생명자원과학대학원 석사과정) 동문도 각각 시·군 단체장에 도전장을 냈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2일 자정까지다. 또 6월 8일과 9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번호 주요기사

02	6·13 선거출마 동문
03	이용규 총동창회장 인터뷰
04	동문대상 수상 소감
05-07	동창회 소식
08-09	동문동정
10	자랑스러운 동문
11-12	모교 소식
13	동문 칼럼
15	회비 납부 현황

6·13 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및 제2차 상임이사회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7월 중)

연회비 납부안내

- 회비 : 연회비_20,000원/평생회비_100,000원
- 동창회 계좌_농협 : 506-17-002691
- 전북은행 : 529-13-0323304
- 국민은행 : 741801-00-001396

6·13지방선거 교육감·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출마 동문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기준으로 본교 학력만 기재

교육감				단체장					
	서거석 대학원 법학석사	이미영 사범대 지리교육과	이재경 교육대학원 석사		김승수 (전주시) 대학원 정치학석사	이현웅 (전주시) 행정학과/행정대학원 수료	박종서 (군산시) 정보과학대학원 이학석사	정현울 (익산시) 사회대 행정학과	이환주 (남원시) 대학원 공학 박사
									
박준배 (김제시)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정성주 (김제시)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박성일 (완주군) 법정대 법학과	백경태 (무주군)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장영수 (장수군) 행정대학원 석사	박기봉 (임실군) 행정대학원 석사	황숙주 (순창군) 상대 경영학과	유기상 (고창군) 대학원 문학박사	권익현 (부안군)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김상곤 (부안군)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도의원

전주시	오평근 (제2선거구) 1958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 (정치학석사)	익산시	손문선 (제3선거구) 1967년생 / 상대 회계학과 졸업
	이도영 (제3선거구) 1978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정읍시
	이병도 (제3선거구) 1966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 (정치학석사)		김철수 (제1선거구) 1956년생 /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재학)
	김상휘 (제6선거구) 1960년생 / 인문대 사학과		고영규 (제1선거구) 1957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송성환 (제7선거구) 1970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김대중 (제2선거구) 1968년생 /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오영철 (제7선거구) 1955년생 / 대학원졸업(공학박사)		남원시
	김명지 (제8선거구) 1963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강용구 (제2선거구) 1975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김종담 (제8선거구) 1958년생 /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김제시
	국주영은 (제9선거구) 1965년생 /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장덕상 (제1선거구) 1963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하대성 (제10선거구) 1962년생 /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		장수군
	이명연 (제11선거구) 1965년생 /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박용근 (장수선거구) 1960년생 /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창군
			안종선 (제2선거구) 1960년생 /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

| 기초의원

전주시	송승용 (나선거구) 1972년생 / 재료공학과 졸업	익산시	최종오 (가선거구) 1956년생 /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최주만 (나선거구) 1958년생 /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김귀진 (가선거구) 1954년생 /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김강수 (나선거구) 1964년생 / 경제학과 졸업		김충영 (나선거구) 1963년생 / 토목공학과 졸업
	김원주 (다선거구) 1968년생 /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소길영 (마선거구) 1967년생 / 농업경제학과 졸업
	허승복 (다선거구) 1975년생 /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민서 (사선거구) 1966년생 /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김윤철 (다선거구) 1956년생 / 대학원 정치학석사		정읍시
	임병오 (다선거구) 1956년생 /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정상섭 (사선거구) 1964년생 / 대학원 법학과 법학 석사
	김진환 (다선거구) 1949년생 /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남원시
	서선희 (라선거구) 1967년생 / 대학원 공학석사		전평기 (나선거구) 1961년생 / 농업개발대학원 농학 석사
	박형배 (마선거구) 1971년생 / 행정대학원 석사수료		오동환 (다선거구) 1957년생 /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이미숙 (마선거구) 1960년생 /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수료		소영호 (마선거구) 1965년생 /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이경신 (바선거구) 1963년생 /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수료		김제시
	김은영 (바선거구) 1968년생 / 전산통계학과 졸업		신정식 (가선거구) 1971년생 / 산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전병욱 (사선거구) 1960년생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수료		김성배 (나선거구) 1961년생 /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김윤권 (아선거구) 1984년생 / 무역학과 졸업		윤여연 (가선거구) 1960년생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김진욱 (아선거구) 1971년생 /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수료		완주군
	김남규 (아선거구) 1958년생 / 축산학과 졸업		이주갑 (나선거구) 1970년생 / 무역학과 졸업
	은영표 (아선거구) 1966년생 / 대학원 건축도시공학과 석사수료		서남용 (라선거구) 1960년생 / 수학과 졸업
	김학송 (자선거구) 1970년생 /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진안군
	황만길 (자선거구) 1943년생 /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이우규 (가선거구) 1965년생 / 회계학과 중퇴
	송상준 (자선거구) 1961년생 /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배성기 (가선거구) 1960년생 /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서난이 (카선거구) 1986년생 /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준열 (가선거구) 1959년생 /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군산시	김경구 (가선거구) 1951년생 /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무주군	김광수 (나선거구) 1963년생 / 축산학과 졸업
	이한세 (다선거구) 1967년생 / 농학과 졸업		박희용 (가선거구) 1977년생 / 기계공학부 기계설계과 졸업
	한상동 (다선거구) 1973년생 / 생명자원과학대학원 농학석사		윤문식 (가선거구) 1977년생 / 생물자원과학부 작물생산공학 졸업
	신영자 (바선거구) 1954년생 /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공학 석사		임실군
	유선우 (바선거구) 1969년생 / 공업화학과 졸업		진남근 (가선거구) 1956년생 / 원예학과 졸업
	김중신 (사선거구) 1952년생 /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김양중 (다선거구) 1967년생 / 축산학과 졸업
	김우민 (사선거구) 1967년생 /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졸업		고창군
			김성수 (가선거구) 1996년생 / 경영학부 졸업
			최인규 (나선거구) 1953년생 / 농생명과학과 재학
			김한성 (다선거구) 1969년생 / 농생명과학과 재학
			오세환 (다선거구) 1964년생 / 중어중문학과 졸업
			임정호 (다선거구) 1958년생 / 농생명과학과 재학
			조규철 (라선거구) 1966년생 / 농생명과학과 졸업

* 출마자 명단은 중앙선관위 자료와 동창회 DB를 참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동문 중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모교 육성, 동문 친선 내 자녀 내 고장 위하는 길



◇ 37대 동창회장으로 추대된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은 ?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동창회와 모교 육성 지원을 위해 힘을 쏟아왔습니다. 동창회를 맡은 직후 개인적으로 가까운 몇몇 선배님들께서 동창회에 시간을 쏟으면 제 개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며,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 동창회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외국의 사례가 모두 다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버드 등 세계적으로도 유명 대학에서는 동창회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학교 후원금이 동창회를 통해 모금됩니다.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아 학교 발전을 꾀합니다. 학교는 동문들과 함께 학교 발전을 이뤄나갑니다.

동문과 재학생, 교수 등 학교관계자, 이 세 구성원들로 학교는 이뤄져있지요. 이 3박자가 화합을 이룰 때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1년간 하신 일을 설명해주시지요.

우선 동창록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의 목적은 동문간 친목도모와 모교 육성지원입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문간 소통을 위한 동창록 발간이 꼭 필요합니다. 동창록은 지난 2009년 발간된 이후 10년만에 새로이 발간하는 것입니다.

◇ 동창록 발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협조해주신 동문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우리 동문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일부는 소극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동문님

들이 동창록에 자신의 연락처 등이 수록되기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동문님들의 열의가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동창회에는 옛 동문님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소록에 관련 정보가 없으면 연결시켜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규회장이 4월 말 모교 박물관 앞에서 후배들에게 지난 80년대 학교상황을 설명하며 "지금도 교육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회장은 후배들에게 학업도, 사랑도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활짝 웃었다.

◇ 동문친선 골프대회도 성황을 이루었지요?

동문친선 골프대회를 지난해 9월 개최해 동문간 친선 도모와 모교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원봉사로 행사를 준비하고, 성대하게 마무리 했다는게 이번 골프대회의 특징입니다. 총동창회의 젊은 층들이 각 영역별로 나누어 업무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팀 구성이라든지, 골프장 현장 준비, 룰 제정, 상품권 협찬 섭외 등 많은 분야의 일을 자원봉사 동문들로 꾸려졌습니다.

올해 초 신년교례회도 이채로웠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셔서 큰 성황을 이룬 게 특징입니다. 특히, 지역의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해 우리 동창회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모교의 개교 70주년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동창회에서 한 일을 설명해주시지요.

우리 대학은 해방 이후 한강 이남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저력있는 대학입니다. 동문들 역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해 지역과 전국 각지, 각계각층에서 조용하게 자기 소임을 다 하면서 내 일에서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전북대학이 2017년 10월에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대학의 역사에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는 해였습니다.

우리 총동창회에서는 동창록을 새로이 제작하고, 골프대회 등 친선화합 운동경기 개최를 비롯해 모교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 지원했습니다.

◇ 동창회의 목적은 동문간 친선도모와 모교 육성지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먼저 동창회와 재단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모금을 해서 모교 지원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몇몇 개개인이 뭉치돈을 내놓는 것은 오래 가질 못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액 기부를 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동문회비를 자동이체(CMS)하는 제도를 올 가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구좌당 5천원씩을 이체하는 방안입니다. 재물에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구좌 수를 늘려 가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동이체(CMS) 제도를 정착시킬 방안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모금보다는 투명한 자금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봅니다. 이를 동문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보내주신 성원에 보람을 안겨드리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관리할 때 우리의 취지에 동참하는 동문들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제도를 통해 회비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장학회관을 교내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새로이 장학회관을 신축, 임대사업 등을 통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모교 지원과 동창회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합니다. 아무쪼록 사업 초기에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올해 동창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7월 제2차 상임이사회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님들을 모시고 교례회 겸 축하 모임도 갖을 계획입니다. 사실 전북은 전북대인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문 수가 20만으로, 어림잡아 전북도민 10명당 1명이 우리대학 출신인 셈입니다.

당선된 지역의 단체장을 한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의 발전 방향에 관해 설명을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바랍니다. 가을에는 지난해에 이어 동문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동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모교육성에도 동참하는 1석3조의 행사에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끝으로 동문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재주가 뛰어나 다하더라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동문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동창회 참여에는 재물 기부만이 능사는 결코 아닙니다. 재능과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와 후손들을 위한 위대한 과업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전북대학교동창회 동문대상 시상식



제20회 전북대학교동창회 동문대상 시상식이 4월29일 오후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 개인으로는 이용재 동문(재경동창회장·다산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이, 단체로는 토목공학과 현대건설동문회가 각각 수상했다. 동문대상이 시행된 이후 단체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37대 동창회에서 처음 시행된 해외동문특별상에는 박철동문(전 뉴욕동문회장)이 수상했다.

이용규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며 축하했다. 사진 맨 오른쪽에서부터 이용규동창회장, 박철동문(해외동문특별상 수상), 김태규동문(토목공학과 현대건설동문회장), 정성석부총장.

개인상 : 재경동창회 이용재회장

단체상 : 토목공학과 현대건설동문회 김태규회장

해외동문특별상 : 박철 전 뉴욕동문회장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에 큰 상을 받게돼 매우 기쁩니다”

“몇몇 동문들 모여 적은돈 기부하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상을 받게돼 대단히 기쁘고, 모교와 연결끈이 더욱 튼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차 미국 출장길에 올라 시상식에는 직접 참가하지 못했지만, 사전 인사를 통해 재경 이용재회장은 “모든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모교에 자신의 부친인 심천 이강오 교수를 기리는 ‘심천학당’ 건립사업 외에도 모교발전기금으로 거액을 기탁했다. 사재를 출연해 재경 동창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큰 일을 조용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동문들에게 받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아침 7시 출근해 퇴근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당시 현장 근무 분위기를 전하며 첫 운을 댄 김회장은 “전주 용산교 건설 당시 몇몇 동문들이 모여 그야말로 적은 돈을 기부하면서 모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동문들이 모여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현대건설동문회를 만들어 장학사업을 시작한 장학회 창립 멤버다.



해외동문특별상을 수상한 박철 전 뉴욕동문회장은 수상 후 “대단히 고맙다”고 첫 소감을 밝히고, “모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 분들이 모교와의 연결 끈이 더욱 튼실하게 이어지면 좋겠다고 바램을 밝혔다. 박철회장은 이날 수상을 위해 부인과 함께 뉴욕에서 직접 참가했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메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라북도!”



천·년·의·비·상
전라북도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연이 10월30일 정담원에서 동창회 임원과 학교 보직교수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교출신 의사들의 음악 모임인 닥터스 밴드(Doctors Band)가 특별 출연해 여흥을 북돋웠다.



올해 5월23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재학생 대동제 개막식에서 이용길수석부회장(사진 오른쪽)이 박진총 학생회장(사진 왼쪽)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1959년 창립해 대학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생 동아리 '흥회'가 지난해 8월15일 전북대 농생대 1호관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높이 3m, 폭 1.5m의 기념비에는 앞면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흥'이라는 대형 글자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아름다워라! 군세라! 우뚝하라! 종달새처럼 즐겁게! 시냇물처럼 꾸준히! 해보라하지 말고 나로부터 비롯하라!'라는 흥 회훈이 쓰여있다. 흥회는 1959년 당시 이리(현 익산시 마동)에 있던 전북대 농과대학에서 신입생 9명이 뜻을 모아 창립해 올해 60년째로 전북대 최고(最古) 동아리다.



지난해 5월10일 로씨나에서 열린 37대 동창회 첫 단대회장단 간담회에서 생활대 엄호순회장이 동창회의 향후 업무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총동창회 신년교례회가 1월29일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동문과 도내 기관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기관장들. 오른쪽부터 김승수 전주시장,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이남호 모교총장, 이용규 총동창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도교육감, 김광수 국회의원, 강인철 도경찰청장.



지난해 7월 초복 때 고문단 간담회



전북대 언론인회(회장 이보원) 회원들이 지난해 늦가을인 11월초 무주에서 동문과 동문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지난해 7월 삼성문화회관 앞 로즈가든에서 이용규 총동창회장과 총학생회 임원진이 17일부터 일주일간 펼쳐지는 농촌봉사활동 지원 계획 등에 대해 환담하며 견고 있다.



총동창회 백영기교문(85·수 의과대학 명예교수·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모교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전북대 수 의학과 1회 졸업생인 백교문은 수 의과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암 백영기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학기금 조성도 약속했다. 사진은 5월17일 이남호 총장이 백교문을 대학본부로 초청해 장학기금 기탁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장학재단 90차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영빈관에서 재단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1월9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린 동문언론인 신년인사회. 이날 인사회에서는 전북일보 김원웅 논설위원과 전북CBS 이균형부장이 각각 동문언론인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전북도민일보 한성천 편집국장이 받았다.



동문언론인상 수상자 사진. 왼쪽부터 전북일보 김원웅 논설위원, 전북CBS 이균형부장, 전북도민일보 한성천 편집국장.



'도전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70주년기념 음악회가 10월14일 토요일 오후 4시 삼성문화회관에서 동문 초청 무료행사로 펼쳐졌다. 1부에서는 우리 대학 출신 최명희작가의 '혼불'을 모티브로한 국악공연이, 2부에서는 클래식과 함께 애절한 목소리의 소리꾼 장사익님이 '봄날은 간다' '짚레꽃' 등을 소리로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주공연에 앞서 서울에서는 9월26일 19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제14대 전북대학교 수 의과대학 동문회(회장 곽택훈) 정기이사회가 2017년 7월22일 수 의대 행정관에서 열렸다. 곽택훈 동문회장은 활력과 꿈이 있는 동문회를 기반으로 동문들의 소통 강화, 동문회 재원 확보, 장학기금 모금 및 운영, 다양한 동문 행사 개최 등의 4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2017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가 지난해 10월18일 교내 정담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 업무보고에 이어 재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지난해 9월3일 군산CC에서 열린 동문친선 골프대회 피로연 장면. 이날 대회에는 80여팀 320여명의 선수를 비롯해 관계동문 등 모두 400여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젊은 층들이 봉사활동에 나서서 경기를 준비했다. 팀 구성을 비롯해 경기 룰 제정, 현장 점검, 상품권 협찬 등 각 영역별로 업무를 나누어 동문들의 재능기부로 큰 행사가 치러졌다.



제20회 동문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식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 총동창회 35·36대 회장)가 2018년 4월4일 삼성문화회관 내 영빈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개인으로는 재경동창회 이용재회장이, 단체로는 전도현(전북대학교 토목과 현대건설)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단체가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미국 뉴욕동문회 박철 전 회장은 해외동문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3일 군산CC에서 열린 동문친선 골프대회 피로연에서 이용규회장이 발전기금 500만원을 이남호 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축제 전시회



전주문화방송에서는 전북대 개교 70주년기념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9일 오후 동창회 사무실에서 백영기교문과 이용규회장 등이 전북대의 지난 역사에 관해 전주MBC 송지영작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지난해 10월21일 재직교수동문회 순창 강천산행에 참석한 이용규회장이 동문 재직교수들에게 동창록 발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동창회 임원진이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을지훈련에 애쓰고 있는 전주시청 동문들을 방문해 떡과 포도 등 간식을 제공하고 격려했다.

시조집 '세월의 물줄기 따라' 출간



이근풍 동문(1963년 경제학과 졸)이 시조집 <세월의 물줄기 따라>(오늘의 문학사)를 출간했다. 17권의 시집을 냈지만 시조집은 처음이다. 100편이 수록됐으며, 시조의 종장만으로 빛은 15자 내외의 작품부터 45자 내외의 단시조, 구별배행과 장별배행의 연시조, 종장을 길게 늘인 사설시조까지 형식이 다양하다.

제15대 남원문화원장 취임



김주완 동문(1971년 농업경제학과 졸)이 지난 4월 11일 남원문화원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북대 남원부시장, 양희재 남원시의회 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임기는 오는 2021년까지다.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공로상



한병성 동문(1975년 전기공학과 졸)이 지난 1월 17일 열린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모교 교수로 정년퇴임한 한 동문은 10여 년간 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학연 교류를 통해 신기술 이전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협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장학제도 도입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기 분야 우수 인력 육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전주대학교 부총장에



양병선 동문(1979년 영어영문학과 졸)이 지난 2월 1일 전주대학교 부총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전주대 영미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해 온 양 동문은 전주고와 모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언어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주대에서는 국제협력교육부장관과 신문방송국장, 선교봉사처장 등을 역임했다.

천리포수목원 제7대 원장에



김용식 동문(1979년 임학과 졸)이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의 제7대 원장에 선임돼 2월 1일 취임했다. 천리포수목원은 김 원장이 천리포수목원의 1호 교육생 출신이며, 35년 넘게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인재양성과 식물 다양성 보전에 노력해 천리포수목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해 새 원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모교 임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은 영국 왕립 큐우식물원과 레딩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이수하고 1983년부터 영남대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선임



이병렬 동문(1980년 정치외교학과 졸)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에 선출됐다.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이 동문은 지난 3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에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공동의장에 뽑혔다.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적 연대를 통한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17개 광역 시·도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의 협치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동문은 2017년부터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감사 취임



이춘구 동문(1980년 법학과 졸)이 3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에 임명됐다. 이 동문은 재무회계와 기금운용 내역 등 국민연금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기자 출신인 이 동문은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KBS 심의실 심의위원, 전북대 산학협력단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모교에서 학사와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서부발전 제8대 사장



김병숙 동문(1980년 전기공학과 졸)이 3월 8일 한국서부발전 제8대 사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경영의 기본방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모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헬싱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모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은 김 동문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기술엔지니어링본부장, 신성장동력본부장을 거쳐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대표를 지냈다.

한국경제교육학회장 추대



최종민 동문(1981년 농업경제학과 졸)이 한국경제교육학회장에 추대됐다. 모교 교수(일반사회교육과)로 재직 중인 최 동문은 지난 2월 1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 한국경제교육학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학회장에 추대돼 3월 1일부터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최 동문은 "오는 8월 전북대에서 한국경제교육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학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학회 차원에서 흥미롭고 질 높은 경제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3대 한국영양학회장에



차연수 동문(1982년 농화학과 졸)이 올 초 제33대 한국영양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모교 교수(식품영양학과)로 재직 중인 차 동문은 지난 2016년 한국영양학회 총회에서 2018년 회장으로 선임돼 올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37대 회장



이수택 동문(1982년 의학과 졸)이 지난 1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37대 회장에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동문은 지난해 말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한소화기암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로



소성모 동문(1982년 경영학과 졸)이 지난해 12월 말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남원 출신인 소 동문은 지난 198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상호금융여신단장, 상호금융지원부장,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NH농협은행 부행장(디지털뱅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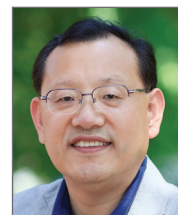
소 동문은 "농협상호금융이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취임



박종만 동문(1984년 토목공학과 졸)이 2월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제14대 전북지역본부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취임식에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동문은 지난 198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한 이후 무진장지사장, 금강사업단장을 역임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임



이중희 동문(1985년 정밀기계공학과 졸)이 국내 과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 대열에 올랐다. 모교 교수(대학원 BIN융합공학과)로 재직하고 있는 이 동문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과 한국공학한림원 일반 회원으로 동시에 선임됐다.

이 동문은 지난 1996년 모교 강단에 선 이후 27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중 200여 편을 상위 10% 이내의 논문집에 게재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뒀다.

LH 경기지역본부장에



원명희 동문(1985년 법학과 졸)이 1월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원 신입 본부장은 이날 성남 분당 LH 경기본부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원 동문은 전주고와 모교를 졸업한 뒤 지난 1988년 LH에 입사해 비서실장, 남북협력처장, 법무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토·주택 분야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추진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 민간위원장 추대



이귀재 동문(1986년 농생물학과 졸)이 제7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추대됐다.

모교 교수(생명공학부)로 재직 중인 이 동문은 지난 2월 22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제7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후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민간위원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2년이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김희권 동문(1986년 회계학과 졸)이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전주고와 모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지원실장·용인지사장·화성오산지사장·안양과천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본부장은 “전 직원이 청렴 의지를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0대 전북지방조달청장



전형구 동문(1986년 졸)이 3월 6일 제30대 전북지방조달청장에 취임했다. 전 동문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고객 중심 조달행정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 동문은 국제물자국 국제협력과, 원자재총괄과, 구매사업국 쇼핑물기획과, 자재장비과,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공공물자국 해외물자과장 등을 두루 거친 조달행정 전문가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윤태준 동문(1987년 건축공학과 졸)이 2월 1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에 취임했다. 윤 동문은 1989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 유동화심사센터장, 남양주지점장, 안산지점장, 인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동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공적 보장제도인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제3대 센터장



박광진 동문(1987년 전산통계학과 졸)이 지난해 12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제3대 센터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창업 붐업 △특화산업 기업 육성을 3대 목표로 내세우며 혁신창업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동문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북 창업의 거점, 창업의 중추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임



정기현 동문(1989년 의학과 졸)이 지난 1월 23일 국내 공공보건의료 중심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선임됐다.

정 동문은 지난 2003년부터 전남 순천 내일의료재단 이사장으로 현대여성아동병원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정 원장은 전남지역 의료취약지에서 미숙아와 고위험신생아를 치료하며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했다.

LH 전북본부장 취임



임정수 동문(1989년 경영학과 졸)이 1월 2일 LH 전북본부장에 취임했다. 임 동문은 198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전략경영실, 홍보실, 노사협력처장 등 본사 주요 부서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7년에는 LH 주무부서인 총무고객처장을 역임했다. 구성원들과의 친화력이 높고, 풍부한 업무경험을 장점으로 조직 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33대 전주시의사회장 취임



김종구 동문(1989년 의학과 졸)이 전주시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주시의사회는 3월 15일 전주시 경원동 JS호텔에서 김광수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대한의사회 임수흡 의장, 전라북도의회 김주형 회장, 의료관련 기관 관계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3대 회장으로 김종구 동문을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김 동문은 전주 완산고와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전북의사회 총무이사과 중앙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농협 전북지역본부장에



유재도 동문(1989년 법학과 졸)이 1월 1일자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을 맡았다. 유 본부장은 전라고와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농협에 입사해 농협중앙회 종합조정실 신경영기획단, 채권관리단, 농협 정읍시지부장, NH농협은행 여신관리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 동문은 온화한 인품과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바탕으로 조직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

KT 전북본부장 취임



김현수 동문(1991년 정밀기계공학과 졸)이 지난해 12월 KT 전북본부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남원 출신으로 지난 1990년에 KT 입사한 후 본사 인사담당과 경제경영연구소를 거쳐 수도권 서부본부 강서지사장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전북지역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페이퍼 공장장 취임



김경식 동문(1993년 기계공학과 졸)이 지난해 12월 전주페이퍼 제20대 공장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1993년 한솔제지에 입사한 후 전주공장 생산팀장, 원료팀장, 청주공장 생산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고품질의 신문용지를 생산, 전주페이퍼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15대 김제소방서장 부임



강원석 동문(1993년 화학공학과 졸)이 1월 2일 제15대 김제소방서장으로 부임했다.

강 동문은 지난 1995년 제8기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소방공무원에 입문했다. 이후 본부 기획예산담당 및 대응구조담당, 익산소방서장, 전주 덕진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기획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빈틈없는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 신망도 두둑다.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년 연속 수상



김재엽 동문(1997년 의학과 졸)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 우리병원 원장인 김 동문은 지난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경영부문 대상에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및 개인(단체)을 발굴·시상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제46대 전북기자협회장 당선



이창익 동문(1997년 경제학과 졸)이 지난해 12월 제46대 전북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2년이다. 선거는 이 동문이 단독으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이 동문은 1997년 전주MBC에 입사한 이후 취재부장과 전북도의회 정치부장간사 등을 맡았다. 이 동문은 “언론이 언론으로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암환자와 가족들 위한 지속적 후원 펼쳐

전주 예수병원 암환자후원회장 항암 백신효과의 장기면역실험 등 진행



양창렬 동문
(의학과 75)
전주 참병원장

“암은 이제 보편적인 병으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치료 과정 뿐 아니라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

원회는 암환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예방사업과 홍보, 치료사업, 암 환우 단체 지원 등 경제적 후원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6년째 전주 예수병원 새힘 암환자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양창렬 동문(62·전주 참병원장·의학과

1975년 입학)은 성경 말씀대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나눔의 삶을 실천해 온 인물.

한스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양 원장은 후원회에 관해서만 겨우 몇 마디 입을 열었다.

“최근 암 발병률과 생존율이 증가하고 의학의 발달은 진단과 치료법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암도 불치병이라기보다는 극복 가능한 질병으로 이해되기에 이른 거죠.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진단과 치료 및 재활에 있어 전보다 훨씬 다양함이 요구되고 있고 개인적, 사회경제적, 국가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사적 여러 영역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역량에 맞게 감당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면서, 후원이 절실했

습니다.”

암환자후원회는 1982년 전주 예수병원에서 직원들이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학적 상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암 판정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이처럼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암환자를 도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가정과 사회적으로 재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셈. 현재 회원은 1000여 명이다.

이후 36년 동안 2170명에게 9억4000만 원을 지원해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경제적 후원이나 치료사업 이외에도 암환자를 위한 자선음악회, 암 예방 캠페인 등반대회 등 암환자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또 암 예방 수기와 지식을 제공하는 간행물을 발행하고 10년 넘게 전주시내 7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항암 백신효과의 장기면역능 관찰실험 등 연구사업도 진행 중이다.

양 원장이 예수병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5년 군의관으로 제대한 뒤, 10년 동안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터다. 이때 이후 전주 기독병원장을 거쳐 2002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60병상 규모의 참정형외과를 열었다. 지난해는 99병상 규모로 키웠다.

참병원은 인공관절 수술, 골절수술, 경추 및 척추질환 전문병원이다. 하지만 가능한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꼭 필요한 경우만 교과서적 접근을 통해 수술적 치료를 ‘인색하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지난 2008년에는 전북도내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으로 꼽혔다.

양 원장은 암환자후원회장 이외에도 교회 의료봉사과 동남아 등의 어려운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병원에는 5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는데 양 원장을 비롯해 김민기(정형외과), 이민승(마취통증의학과), 김혜린(영상의학과) 등 4명이 본교 의대 동문이다.

LNG 기술자립화 · 민간기업 해외진출 추진 큰 획

내부직원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모교인연 각별..산학협력 적극 지원



김영두 동문
(정밀기계공학 77)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중략)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다. 작가는 로버트 프로스트(미국·Robert Frost, 1875~1963).

김영두동문(기계공학 77·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은 이 시 같은 삶을 살아왔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83년 갓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유수의 기업에 합격했지만,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가스공사에 끌렸다. ‘가지 않은 길’을 택한 것.

가스공사는 1970년대 석유과동을 계기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해외에서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저장 후 천연가스로 가공하여 가정과 산업체 및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입사 후 김동문은 LNG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연수를 다녀와 입사 2년 만에 공사 내 LNG 전문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당시 선배나 외부인사들 까지도 젊은 직원인 지금의 김부사장에 게 LNG관련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김동문은 당시 대한민국에겐 불모지나 다름없던 천연가스(LNG)분야의 기술을 자립화하고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수상(2002)하기도 했다.

한길을 파온 김부사장의 노력과 뜻이

맞는 동료들의 지원 덕이 컸다.

한국가스공사는 10여 년 전부터 13개국 2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생산된 LNG를 도입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김동문은 국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안정적인 LNG 설비 운영체계를 구축한 공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아 2017년 1월 공사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지금의 김부사장은 LNG 연관 산업인 조선산업, 플랜트 건설, 철강산업 등 민간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에도 큰 몫을 했다.

대표 사례로는 GS건설과 합작한 태국 LNG인수기지 건설(2010), 삼성물산 등과 합작한 멕시코 LNG 터미널 건설 및 운영사업(2012), 롯데케미칼 등과 합작한 우즈벡 수르길 가스케미칼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사업(2016) 등이 있다. 특히, 우즈벡 수르길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산업의 주원료를 가스로 대체하여 성공한 민관합작 자원외교 성공사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엔지니어로서 재직 중 경제학 박사를 취득해 공사의 기술과 경영분야에 균형감있게 기여할 수 있었다.

외부 학회활동 및 자문단에 참여하면서 공사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한국가스학회 부회장, 에너지공학회 이사, 자원경제학회 감사,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장 정부의 에너지자문위원, 서울대 외국인에너지인력양성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본사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경북대학교 외래교수로 강의도 맡고 있다.

김동문은 내부직원의 평가로 이루어진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수평적 리더십’ 덕분이다. 강성인 노동조합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문은 전국 사업장 안전점검을 시로 나가고 있다. 그때마다 잔뼈가 굵은 여러 생산기지와 공급시설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고 한다. 무에서 만들어낸 오늘의 한국가스공사의 시설을 바라볼 때마다 35년 전 젊은 청년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미국 프로스트(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처럼 살아온 김영두동문.

그는 모교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공사와 모교간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고, 특강을 통해 틈틈이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모교 대표 브랜드로

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국제컨벤션센터·법학전문대학원 신축 캠퍼스 명품 둘레길 조성...친환경 스마트 강의실 100실 눈앞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 조감도

화려한 봄꽃과 어우러진 전통 한옥형 건물과 한국의 미를 함뿍 담고 있는 캠퍼스 야경, 그리고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한옥 건축 교육을 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학과까지. 모교는 그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대표 대학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큰사람교육개발원부터 70주년 기념광장,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컨벤션센터 등을 한옥으로 신축하고 있어 곧 가장 한국적인 대학으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방에 과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명품 브랜드로

모교가 브랜드화 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전주의 브랜드, 즉 ‘한옥’을 대학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대표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그리고 한국적인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장 한국적인 것’을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역과 문화적으로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학사회의 출발인 샘’이다. 이를 통해 단순 수치로 환상되는 성과 위주가 아닌 한국적인 대학이라는 브

랜드를 키워 세계 속에 모교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우수 학생과 교수들이 모교를 찾고, 우수 졸업생 배출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하게 되어 명문대학이라는 인식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우수 신입생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이나 연구비 수주액도 크게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게 모교의 복안이다.

▲ 캠퍼스 외곽도 ‘생태, 스토리 길로

모교는 캠퍼스를 둘러싼 내·외곽 길을 자연 친화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길로 만들었다. 신정문에서 구정문 사이 500m를 ‘녹색예술의거리’로, 구정문에서 덕진공원에 이르는 1.05Km 구간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로 조성했다.

이 길의 특징은 캠퍼스와 인접한 인도를 대학 안으로 넣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캠퍼스 내부로 다닐 수 있도록 벽을 허물었

다는 점이다. 때문에 모교 캠퍼스는 누구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공원같은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도 박차

모교는 9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사업 예산도 2015년 36억 원, 2016년 44억 원, 2017년 45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여기에 기부금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강의실 100개 구축 사업’도 추진 3년 만에 84개를 완성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학생들 등록금이 아닌 국고 예산과 기부금이다.

특히 한국적 캠퍼스 조성사업 역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업은 강의실, 세미나실, 컨벤션홀, 전시실, 식당 등 모두가 구성원을 위한 교육 및 연구·학술 진흥을 위한 공간들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동문과 지역민은 물론이고 지자체들까지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내 손안의 은행 올원뱅크

간편송금부터 더치페이까지 손쉽게

간편 송금부터 경조금 송금, ATM출금, 바코드 결제, 더치페이까지 이제 올원뱅크 하나로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시작하세요.

올원뱅크 시작하기!

스마트폰 출금(스마트어 또는 영수증)에서 올원뱅크를 검색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나만의 은행

All One Bank

- 1 쉽고 빠른 간편송금
- 2 모임하고 더치페이
- 3 카드없이 ATM출금
- 4 기부, 모임, 나만의 은행

※ 7월 1일부터 내원은 배당금배당금 및 상환금배당금 배당금이나 가변금 1000~2800으로 운영합니다. 운영일: 2018.07.01~2018.12.31 ※ 배당금배당금 배당금



‘배롱나무연못’으로 되살린 동문들의 추억

2000년대 초반까지 박물관 앞에 일명 ‘새내기 연못(Fresh Pond)’으로 불리며 존재해 왔으나 대학 박물관 건립과 함께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연못이 복원돼 많은 동문들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있다.

이 연못이 사라진 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추억했고, 모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원래 부지에 동일한 크기와 형상에 현대적 해석을 가미해 연못을 복원,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모교는 특히 옛 연못 매립 당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은 배롱나무를

연못 중앙에 그대로 옮겨 심었고,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이 나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연못 이름을 ‘배롱나무 연못’이라 명명했다.

또한 복원 과정 중 옛 연못에 사용됐던 돌들도 발굴돼 복원에 재사용했고, 2013년 박물관 측면에 건립한 ‘고향정(古香亭)’을 복원된 연못가로 옮겨 한국적 정취까지 더했다.

이남호 총장은 “많은 이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감동 스토리가 만들어질 이 연못을 더 아끼고,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교 70주년, 전북현대모터스와 함께 'go~ go'



모교 개교 70주년 기념일을 맞은 10월 15일 오후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FC와의 경기가 '전북대의 날'로 운 영돼 모교 교직원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 응원전을 펼치며 전북현 대모터스의 K리그 클래식 우승을 기원 했다. 모교와 전북현대는 2015년 협약을

맺고 사인회, 축구클리닉, 축구단 홍보, 강연, 상호교류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날 '전북대의 날' 행사는 전북을 대표하 는 브랜드로 거듭난 모교와 전북현대가 끈끈한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모교는 이남호 총장 비롯한 학생 과 직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응

원단이 응원복을 맞춰 입고 참여해 대형 현수막을 펴고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쳤다.

또한 모교 취타대는 경기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는 공연으로 선수단을 맞았고, 이남호 총장은 전북현대모터스 홍보대 사답게 이날 총학생회장과 함께 시축에 참여했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과 모교 가 협력한다면 지역의 자긍심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전북대와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로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현대 백승권 단장은 "전북을 연 고로 하는 축구단과 전북대학교가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며 "전북 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모교가 한국표준협회 실시 '2017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서울지방 대학을 통 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전국 대학 중 학생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2년과 2015년 전국 1위에 이어 3 번째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까지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 조 사를 통해 진행해 공신력을 높였다.

모교는 이 평가에서 81.9점을 받아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국내 종합대학(수도권) 1위 대학의 점수인 79.7점보다 높아 전국적으로도 학생에 대 한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대학임을 입증 했다.

최고 수준의 서예 작품 만난 개교 70주년 서예전



모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인 하석 박원규 선 생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하석 박원규 선생과 문하생으로 구성된 겸수회(兼修會)가 함께 꾸미는 지난 전시 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 동 우림갤러리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교 박물관 등에서 두 차례로 나누어 열 린 것.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하석 선생은 임권 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과 '취화선'의 글씨

를 쓴 서예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국 내 최초의 서예잡지 창간 등 서예의 대중 화에도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는 한국전각협회 회장으로 '작비서상(昨非書 庠)'이라는 서예 아카데미를 열어 후학들 을 지도하는데 힘쓰고 있다.

1968년 강암 선생 문하에 입문해 1979년 제1회 동아시아미술제 대상을 받으며 서단 에 등장해 한국서예 100년전, 동아시아 4대 서예대전 등 주요 기획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1988년에는 작품집 '마왕퇴백서노자서임 서본(馬王堆帛書老子書臨書本)'이 하버드 대 도서관에 소장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 다.

이번 전시에는 박원규 선생과 그 문하생 들이 쓴 80여 점의 크고 작은 작품들을 만 나볼 수 있다. 특히 박 선생의 문하생들의 작품은 모두 대학에 기증되어 전시회 기간 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대학 발전기

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세로 2미터, 가로 6미터로 된 작품 세 점으로 이뤄진 대작과 가로 3미터의 크 기의 '강건독실 휘광일신기덕(剛健篤實 輝 光日新其德)'이라는 작품이 관람객들의 눈 길을 사로잡았다.

주역의 대축괘(大畜卦) 단전(象傳)에 나

오는 이 말은 '강건하면서 독실하면 그 빛 은 휘황찬란하게 될 것이고, 그 덕은 매일 매일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영원히 강건하고 독 실하여 그 빛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학 생과 교직원 모두의 덕망이 항상 새롭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QS 세계대학평가 5년 연속 '국립대 2위'

모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7 세계대학 평가'국내 종합대학 12위에 랭크됐다. 국립대 가운데는 5년 연속 2위에 오르며 최근 수년 간 국내 종합대학 10위 권 초반, 국립대 2위의 위상을 이었다. 이번 평가는 세계 4,38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 계평판(40%)과 기업계평판(10%), 교원당 학생비율(20%), 외국인 교원비율(5%), 외 국인 학생비율(5%)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종합대학 14위에서 한 계단 순위가 오른 전북대는 학계평판이 국내 모 든 대학 중 13위에 오르면서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이는 모교가 이남호 총장 취임 이후 대학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대학의 네임밸류 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수당 논문 피인용 수'도 최 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국내 16위에 오르며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도 매우 탄탄함을 보 여주고 있다.

모교는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대학평 가, 영국 타임스고등교육 평가 등 최근 수 년 간 이어진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꾸준히 거점 국립대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높은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http://www.hyundaerad.com>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메디컬 네비게이터...

현대영상의학과의원

Hyundai Radiology Clinic

검사항목

- PET-CT : 전신암 조기진단, 64채널 MDCT : 협심증 진단
- MRI 1.5T : 뇌경색, 관절부위, 유방암 등

원장 문 무 창







본원지하와 건물옆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31(사대부고 사거리)

Tel. 063-272-3323 / 063-272-3333

동문 칼럼

‘왜(why)’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나의 진로

• 신 보 라 국회의원

12년 전, 글쓰기를 좋아했던 필자는 수필을 쓰는 국어선생님을 꿈꾸며 사범대 교육학과에 입학했다. 학창 시절 많은 학생들의 경험이었지만 국어를 좋아했던 건 중학교 국어선생님의 영향이 컸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나의 롤모델이었던 셈이다. 나의 진로에 대해 부모님도 흔쾌히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기에 흔들림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택한 길이 계획한 적이 없는 '우연히' 접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듯이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1학년 때 우연히 한 탈북자의 강연을 접하게 되었다.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상황과 마주했다. 당시로서는 얼마 지나지 않은 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벌어진 대기근과 대량아사자, 그것을 만든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철저히 차단하는 북한의 통치구조를 알게 되면서부터 나 자신이 '직장'으로서의 교사를 꿈꾸었는가 아니면 누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성장하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꿈꾸었는

가라는 고민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왜(why)' 교사를 꿈꿨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결국 사회혁신가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고 설득하는 것 역시 교사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대학생 웹진의 기자와 편집장으로 그리고 청년NGO의 대표로 활동했다. 균형·자발·젊음·소통이라는 단어가 지향할 가치를 세우고 청년들의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아 사회에 기여하는 크고 작은 울림을 만들어 냈다.

지금 국회의원 활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대한민국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두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세대의 고민 중 하나인 '육아'문제 역시 주요 관심사다. 역대 정부마다 출산·육아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청년들은 출산을 강요받기 싫다는 반응이 많다. 필자도 앞으로 워킹맘으로 살아가야하기에 이 문제에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청년친화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만들어 내려한다.



왜(why)라는 질문은 인생의 향배를 결정하는 청년시기에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이다. 전북대 후배들도 대학시절 경험하게 되는 동아리, 소모임, 공모전 등의 활동에서 자신과 조직의 미션이 무엇인지 되물어봤으면 한다. 그리고 왜(why)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크게 작은 경험과 결실을 쌓아 가길 권하고 싶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은 분명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문 칼럼

지역은 없다 ... 괴물이 된 포털

• 이 창 익 제46대 전북기자협회장

“공고해지는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정말 가능한 걸까” ‘지역균형발전’... 20년 넘는 기자생활 속에 매년 되새기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군산공장을 꼭 집어 철수를 결정했다. 전북은 왜 매년 아프지 않은 손가락 취급을 당하는 걸까? 강성노조 이야기도 나오고 기초부품업체 부족이나 연구개발 기능이 약해서라는 이야기 등 등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수도 없겠지만 결국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은 사실은 잘라낼 대상은 서울이 아닌 지방의 어느 한 곳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CEO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보면 언론의 경우도 지방이란 개념이 배제됐다는 점에서는 기존 서울공화국 프레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영향

력 1위 언론사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KBS, MBC, 조선일보, 한겨레, JTBC라는 분들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언론권력은 이미 포털이 접수한 지 오래다. 국민들이 기사를 접하는 창은 다름 아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다. 독자나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대 언론 플랫폼은 최근 10여 년간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고 온라인의 출구를 장악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은 국내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취사선택할 뿐 아니라 첨삭 권한까지 가지면서 기존 언론에 대해 실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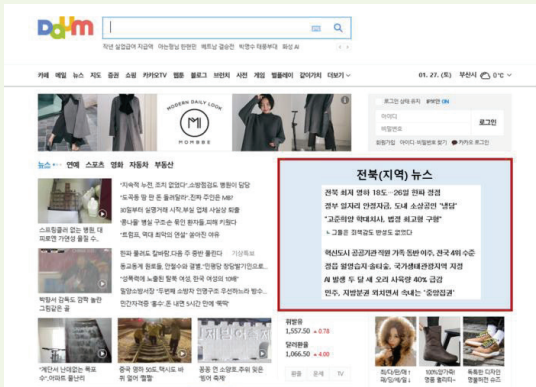
기존 플랫폼(지상파, 신문)이 시청자와 독자를 잃어가고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지역이다. 지역의 수많은 언론사들은 기사 배급 권한을 장악한 포털의 '검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존재감 없이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며 지역의 문화나 지역민의 삶, 지방정부의 공과 모두 제대로 알리거나 평가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이는 곧 지역의 존재와 가치 상실로 이어져 결국 지역이 공멸하고 지방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의 몰락을 막거나 지연시킬 방법은 지역 언론이 숨 쉴 수 있는 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포털사이트에 지역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이 절

실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포털 (다음, 네이버) 1면에 지역을 명시하고 해당 지역의 뉴스를 의무적으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포털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이 필요한데 해당 법안은 전국의 지역 언론사는 물론 시민사회, 언론학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지역의 제대로 된 몫을 찾고, 나아가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언론은 정치인들 못지않게 날선 비판을 받은 수많은 언론사들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역시 정론직필의 의미를 되새기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찾기 위한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특정 기업이나 세력이 소유하기 부담스러운 블랙홀이 돼버린 포털은 특히 지역 언론에게 거대한 벽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미 괴물이 돼버린 포털에 대한 공개념 도입은 언론계에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포털에 지역을 명시하고 지역민과 소통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창을 확보하는 포털지역균형발전법 마련은 지역화 운동의 핵심이고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포털지역균형발전법 시간1.

스마일 1mm절개 특허 획득!

온누리 스마일안과

라식/라섹/스마일/ICL/백내장

- 세계가 인정한 스마일 전문안과
- 타안과 불가능조건 고도난시 400안
- 국내 최초 난시연구센터 위촉
- 2017 의료소비자 만족도 1등급



서울

☎ 02. 6913. 00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5길 1

기본 안질환부터 각막이식까지!

온누리안과

각막/망막/백내장/녹내장/시력교정

- 개인안과 유일 안(眼)은행 운영
- 개인안과 최다 각막이식 400례 시술
- 2016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 2014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



전주

☎ 063. 277. 2774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25

제37대 전북대학교 동창회
임원회비 납입 현황 – 2018. 5. 29일 기준(단위:만원)

구 분	2017년도(37대)	2018년도(37대)
회장(500)	이용규(500)	이용규(500)
고문(10)	백영기(10) 오봉수(10) 천광석(10) 정병하(10) 이규하 평생고문회비(2010년도 납부)	오봉수(10) 천광석(10)
부회장 (100)	이용길(100) 강신길(100) 고양수(100) 김동섭(100) 김병용(100) 김성주(100) 김영량(100) 김용곤(100) 김종태(100) 김종훈(100) 김춘근(100) 남성태(100) 문성기(100) 배진석(100) 백동화(150) 송영석(100) 신창범(100) 심현섭(100) 원경의(100) 유남희(100) 유미경(100) 유태영(100) 이귀재(100) 이대갑(100) 이동규(100) 이미영(100) 이병렬(50) 이윤범(100) 이지원(100) 이진일(100) 임석우(100) 전의현(100) 정영택(100) 조화림(100) 천호성(100) 최백렬(100) 최용구(100) 홍요셉(100) 황승수(100)	강신길(100) 김춘근(100) 남성태(100) 배진석(100) 신창범(100) 원경의(100) 이대갑(100) 이윤범(100) 이진일(100) 전이현(100) 정영택(100) 조화림(100) 최영미(100) 심현섭(100)
단대 회장 (25)	유말봉(간호대 25) 정태두(공 대 25) 이규완(농생대 25) 박종덕(법 대 25) 한석우(사범대 25) 이흥래(사회대 25) 조춘신(상 대 25) 엄효순(생활대 25) 곽택훈(수의대 25) 조광수(예술대 25) 도병룡(의 대 25) 김봉섭(인문대 25) 박기인(자연대 25) 이정직(치 대 25) 박종길(환생대 25)	정태두(공 대 25) 이규완(농생대 25) 한석우(사범대 25) 조춘신(상 대 25) 도병룡(의 대 25) 이정직(치 대 25)
대학원회장 (15)	오재영(교육 15) 김형희(산업보건 15) 이재팔(환경 15)	임한필(교육 15)
지역회장(15)	이봉근(김제 15)	
상임 이사 (15)	간호대	김현경(15) 김현옥(15) 박명희(15)
	공 대	윤재봉(15)
	농생대	곽준옥(15) 박종민(15) 한전수(15) 나종삼(15) 박태일(15)
	법 대	정성필(15)
	사범대	이원형(15) 유승오(15) 조현정(15)
	사회대	강신구(15) 백강현(15)
	상 대	유은석(15) 윤재현(15)
	생활대	라상숙(15)
	수의대	박 훈(15) 설재원(15) 이성효(15) 이한경(15) 장정석(15) 최춘기(15)
	예술대	김정하(15) 이일순(15)
	의 대	윤옥희(15) 조병춘(15) 최은영(15)
	인문대	김인로(15) 정태선(15) 최민철(15) 최영준(15)
	자연대	김철주(15) 유동진(15)
	치 대	
	환생대	박상문(15) 한완수(15)
감사(15)	김정애(15) 김용현(15)	

회비 납부자

2017.07.24 ~ 2018.05.28 성명 가나다순

■ 찬조금

•이용규 (회계 81/88) 3,770만원 •박은숙 (사학 77/81) 5만원
•김우식 (법학 59/63) 10만원 •백승복 (토목공학 71/78) 100만원
•에스원 377,700원

■ 평생회비 10만원

•곽택훈 (수의 66/70) •송애란 (음악교육 86/90) •장여익 (의학 80/86)
•권국정 (무역 62/66) •신영자 (환경대학원 04/06) •전병만 (물리 70/74)
•권찬열 (경제 72/79) •심영만 (임학 69/73) •전 영 (농학 57/63)
•김민철 (화학공학 79/86) •윤안나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조 (기계공학 64/67)
•김봉철 (섬유공학 81/88) •이병호 (의학 84/90) •조영화 (영어영문 68/72)
•김혜미 (동양어문종문 04/09) •이용재 (무역 69/73) •최태호 (에이스최고위과정 2기)
•박병철 (상학 60/64) •이용철 (건축공학 63/70) •한석우 (외국어교육 77/84)
•백승일 (의학 86/94) •이윤범 (전기공학 76/83) •황만길 (법무대학원 05/07)

■ 연회비 2만원

•고귀영 (이리농림 /65) •박승해 (농업공학 77/82) •전태문 (수의 71/75)
•곽택훈 (수의 66/70) •백홍길 (섬유공학 63/70) •조병선 (이리농림 수의 /66)
•권정주 (경영 68/72) •신영화 (과학 06/10) •조익삼 (이리농림 수축 /61)
•권희일 (경영 80/84) •양길영 (무역 67/73) •지창수 (기계공학 57/63)
•김기덕 (공법 84/92) •오무웅 (경영대학원 97/98) •차인권 (법학 67/71)
•김낙완 (사학 68/72) •이갑춘 (행정대학원 5기) •최동근 (원예 79/83)
•김부경 (농업경제 70/78) •이국행 (화학 68/72) •최병인 (이리농림 수축 /42)
•김재명 (기계공학 77/81) •이명연 (행정대학원 재학차학 08/10) •하송아 (교육 99/03)
•김현아 •이병두 (화학 76/80) •한석우 (외국어교육 77/84)
•김희중 (산업기술대학원 00/02) •이종문 (섬유공학 65/72) •한현철 (정치외교 82/89)
•나중호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27기) •이주석 (법학 51/55) •황만길 (법무대학원 05/07)
•노광수 (농업개발 97/99) •임경진 (경영대학원 00/02)
•문보람 (대학원사학 08/11) •전병윤 (농화학 56/62)



총동창회 이용규 회장(왼쪽)과 에스원 유은석 이사장(오른쪽; 무역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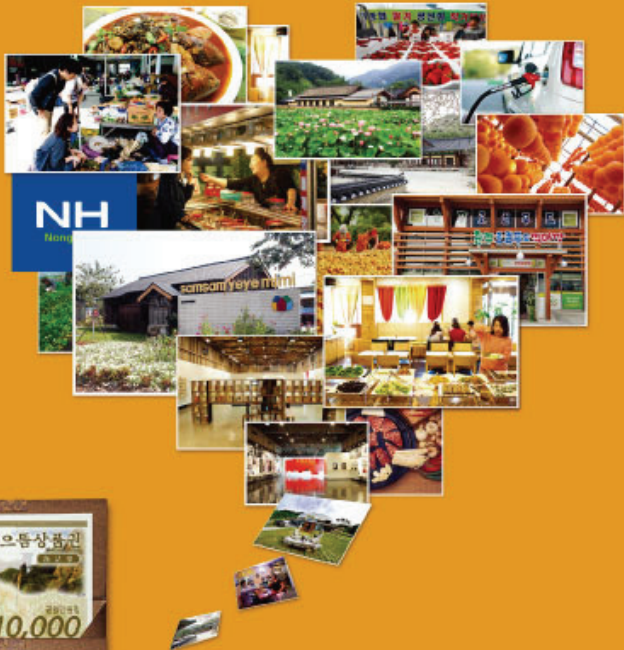
전북대총동창회&에스원 업무협약 체결

총동창회는 에스원과 손잡고, 총 동창회원간 상호발전을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총동창회원이 에스원의 무인경비 및 정보보안 서비스를 신규 이용시에 서비스료 및 공사비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또 에스원은 서비스료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하

기로 했다. 이용규 총동창회장은 “적립되는 발전기금은 모교 및 총동창회원간 도움이 되는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은 에스원을 신규 이용하는 총동창회원 명의로 기탁되며, 국내 보안업체 1위인 에스원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총동창회원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가치에 가치를 더한
행복을 전합니다

이웃사랑의 가치를 소중히여기는 완주으뜸상품권이
완주 군민과 같이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완주으뜸상품권이
우리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



완주으뜸상품권 | 완주군내 소재한
농협에서 액면금액 5%를 할인 판매



Q 완주으뜸상품권이 무엇인가요?

완주으뜸상품권은 완주군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관내 12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Q 완주으뜸상품권 어디서 구매하나요?

지금바로 지역농협에서 구매하셔서 사용가능합니다.

Q 왜?! 완주으뜸상품권을 사용해야하나요?

우리지역에서의 소비가 늘어나야 내자녀 우리이웃들의 일자리가 생기며 내가 사용한 완주으뜸 상품권이 완주경제를 살립니다.

문의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290.2402) 및 읍면사무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 - 다 - 37호
(심의일자: 2018. 1. 30 현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